

1977年 經濟動向과 1978年 展望

安 世 一

〈韓國銀行資金部金融企劃課〉

I. 머 리 말

1976年 下半期 이후 成長鈍化勢를 보여온 先進國經濟는 1974~1975年 不況 이후 雇傭, 인플레이 및 國際收支部門에서 직면하고 있는 諸般隘路要因으로 인하여 1977年 中에도 전반적인 弱勢基調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1973年 오일·쇼크 이래 進行된 世界經濟의 構造的 再編成過程에서 主要各國經濟는 自生的인 景氣回復力의 부족으로 經濟成長勢의 減速현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플레이壓力的 持續, 慢性化된 高水準의 失業, 一部國家의 國際收支 逆調 심화와 이에 따른 保護貿易主義 강화 및 國際流動性 偏在 등 많은 대내외 不均衡속에서 계속 混調를 露呈해왔다.

한편 世界經濟의 이와같은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年동안 우리경제는 10.3%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그 저력을 다시 한번 誇示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輸出 100億弗線 돌파와 經常收支의 均衡達成, 米穀의 획기적인 증산에 의한 主穀의 完全自給化 실현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77年中 우리 경제가 이룩한 이와같은 肯定的인 측면과 함께 對內的으로는 通貨의 急增, 物價의 潛在的 上昇壓力 등 經濟安定을 기초적으로 阻해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石油波動 이래 資源保有國의 資源 Nationalism 및 弱勢通貨國의 新保護貿易主義의 強化趨勢, 後發開途國과의 輸出競爭 加熱

化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本稿에서는 지난 1年동안의 對內外 經濟動向을 간략히 개관하고 1978年의 經濟展望을 主要先進各國의 경제흐름과 國內外 部門別 政策方向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II. 1977年 經濟動向

1. 國際經濟動向

가. 一般動向

1977年 上半期까지만 해도 世界景氣展望은 낙관적이었다. 77年 5月 런던頂上會談에서 美·日·西獨 등 OECD 主要國들은 世界經濟의 回復을 촉진시킬 수 있는 各國의 成長目標를 설정하면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77年末의 諸經濟指標는 당초의 낙관적인 豫測과는 달리 目標成長率에 훨씬 미달하는 完만한 成長을 보였으며 최근 主要經濟研究機關들의 1977年 成長率 推定値는 계속 下向調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즉 당초 國際協力下에서 各國 政府, 특히 美·日·西獨 등 主要工業先進國의 牽引的 景氣浮揚策을 기반으로 한 民間設備投資의 확대, 消費需要의 回復, 貿易規模의 확대 등을 期待했던 樂觀論은 高失業과 高인플레이 위협속에서 이들 國家들의 對內均衡 위주의 미온적인 財政金融政策과 設備投資를 자극할 수 있는

<表-1>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展望

(單位: %)

	1965-1975	1976	1977 ¹⁾	1978 ²⁾
美 國	2.8	6.6	4.75 (5.0)	4.25 (4.3)
日 本	8.4	6.3	5.5 ³⁾ (6.0)	5.0 (6.0)
西 獨	3.2	5.6	4.0 ³⁾ (3.0)	3.5 (3.5)
英 國	2.1	2.8	0.5 (0.2)	2.5 (3.4)
프 랑 스	4.6	5.2	3.0 (2.5)	4.0 (3.5)
이탈리아	4.1	5.6	1.5 (2.0)	2.5 (2.0)
캐 나 다	4.7	4.9	2.5 (2.5)	5.0 (4.0)
O E C D	3.8	5.4	4.0 ³⁾ (3.8)	4.0 ³⁾

註: 1) () 內는 NIESR 展望值
 2) 日本: CMB의 展望 5.0%
 西獨: CMB의 展望 3.5%
 3) OECD 經濟政策委員會 展望值
 資料: 美國 브루킹스 研究所 公表資料

지속적인 수요확대에 실패함으로써 下半年 이래 1978年末 내지는 1979年初까지의 長期沈滯論이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世界經濟動向을 部門別로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나. 經濟成長

77年中 OECD 諸國의 經濟成長率은 3.8~4.0%에 머물러 1976年の 5.4%를 상당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77年の 經濟成長 패턴의 특징은 美國 및 日本이 비교적 호조를 보인 反面 西歐쪽이 不振相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國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美國은 年初 酷寒에 의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自動車 등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支出, 民間設備投資의 호조 및 在庫投資의 급증으로 착실한 成長을 보였으나 中반 이후 企業投資 마인드의 萎縮(政府의 에너지對策 및 稅制改革에 대한 不透明한 展望), 金利引상에 따른 設備投資의 저조와 在庫投資의 일단락으로 成長鈍化를 보였다. 한편 強勢通貨國인 日本 및 西獨은 輸出需要의 호조에 따라 中반 이후 通貨價値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 效果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英國, 이태리 프랑스 등 弱勢通貨國역시 國際收支의 제약으로 成長鈍化現象을 보였다.

이러한 主要國의 成長勢鈍化는 대체로 中長期 景氣展望의 不透明, 企業 코스트上昇 壓力과 投資費用 증가에 따른 企業利潤壓迫, 公害防止, 還

境保護를 위한 各國의 規制措置 강화 등으로 長期設備投資需要가 크게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와 失業增大로 인한 實質個人所得增加의 둔화로 民間消費需要가 부진하였던 데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특히 強勢通貨國의 경우 政府의 인플레이 對策에 따른 所得政策의 강화와 미온적인 景氣浮揚策 등이 主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表-1> 參照).

다. 物 價

1976年말 이래 1977年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가속되었던 인플레이는 中반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高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7年中 인플레이率は 1976年の 8.2%를 다소 상회하는 8.6%에 이를 展望이다. 上半期中 인플레이率が 크게 상승한 것은 食料品 등 國際原資材價格 上昇, 美國 및 西歐一部國家의 異常氣溫으로 인한 部分的 供給隘路, 生産性を 상회하는 賃金上昇에 연초이래의 景氣擴大策 發表에 따른 인플레이 心理가 가세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반 이후 穀物價格의 급격한 하락과 世界市場에서의 主要原資材價格의 下落勢反轉으로 하반기 인플레이率は 크게 둔화되었다.

라. 雇 傭

1975年 5%線을 상회하는 高水準의 失業狀態를 지속하였던 先進諸國의 雇傭事情은 1977年에 들어와서도 美·西獨 등 一部國家를 제외하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國別로는 美國이 1976年の 7.7%에서 7.0%로 하락하였으며 雇傭推進對策을 延長實施한 西獨이 多少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反面, 日本은 1976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西歐諸國은 오히려 상승추세에 있고 특히 이태리는 倍增될 展望이다.

<表-2> 主要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 展望

(單位: %)

	美國	日本	西獨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OECD
1976	5.7	9.4	4.5	15.8	9.6	16.5	8.2
1977	6.5	8.5	4.0	16.0	9.5	19.5	8.6
1978	6.5	6.0	4.0	9.0	8.0	13.0	7.5

資料: NIESR (NIER 1977. 11月)

<表-3> 主要國의 失業率 展望

(單位: %)

	1975	1976	1977 ¹⁾	1978 ¹⁾
美 國	8.5	7.7	7.0	6.75
日 本	1.9	2.0	2.0	2.25
西 獨	4.8	4.7	4.5	4.5
英 國	3.9	5.4	5.75	6.25
프 랑 스	4.0	4.2	5.0	5.25
이 탈 리 아	3.3	3.7	7.0	7.5
O E C D	5.1	5.1	5	5

註: 1) 國別 展望値는 美「브루킹스」研究所의 展望, OECD 全體展望値는 OECD의 展望에 各々 根據

資料: OECD Economic Outlook(1977.7月) 및 美 브루킹스 研究所 公表資料

이와같은 만성적 失業 누증현상은 民間固定投資의 低調에 의한 新規雇傭機會創出不振, 勞働生産性과 實質賃金과의 乖離, 第3次産業人口 比重增加 등 構造的 要因을 지적할 수 있겠다.

마. 貿易 및 國際收支

1976年中 經濟回復勢에 따라 11%의 신장을 보인 世界貿易量 증가율은 1977년에는 5%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었는 바 이는 先進諸國의 성장속도에 따라 輸入需要가 둔화되었고 北海 및 「알래스카」 石油開發로 世界石油去來量 증가세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鐵鋼 및 纖維를 중심으로 한 先進諸國의 保護貿易主義강화와 原資材過剩在庫備蓄에 따른 反動要因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OECD 諸國의 經常收支는 1976年과 비슷한 230億 SDR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日本·英國·프랑스 등이 현저한 收支改善을 보인 반면 美國의 經常收支赤字는 1976年의 11.5億 SDR에서 134億 SDR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表-4> 世界貿易伸張率 展望

(單位: %)

	1965~1975	1976	1977	1978
全商品	7	11	5 ¹⁾	5~6

註: 1) Newsweek(11.28) WEFA 5%, OECD 經濟政策委員會 5~6%로 展望(NIESR의 지난 9月 豫測과 同一)
資料: NIESR(NIER 1977.11月)

2. 國內經濟動向

가. 一般動向

1977年中 國內經濟動向의 주요특징은 첫째, 世界主要國의 일반적 성장수준을 상회하는 高成長勢의 지속. 둘째, 輸出의 지속적인 증가와 海外建設用役受入 등 貿易外收支의 호조 등을 반영한 經常收支의 黑字反轉 및 外換保有額 증가. 셋째, 이러한 海外部門의 호조에서 결과적으로 유발된 通貨膨脹勢의急增 및 이에따른 잠재적인 物價不安要因의 현재화 가능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밖에도 海外進出增大로 인한 技術人力의 不足, 部分的인 國內物量供給의 부족현상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

이와같은 國內經濟動向의 실마리는 무엇보다 輸出動向 및 이에따른 國際收支의 基調의 변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 1977年中 國內經濟의 部門別 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貿易 및 國際收支

1976年中 약 50%의 신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輸出은 77年中에는 30% 수준으로 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당초 目標였던 100億弗線은 무난히 넘어섰다.

輸出內譯을 地域別로 보면 景氣가 호조를 보였던 對美輸出은 31億弗로 25.1% 증가하였고 특히 中東地域의 輸出은 前年에 이어 80.6%의 높은 신장율을 나타냄으로써 尤리한 輸出市場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00億弗以上の 經常收支黑字를내고 있는 日本에 대한 對日輸出은 21億弗에 그침으로써 前年比 19.2%의 저조한 신장세를 보였다.

品目別로는 鐵道車輛, 自動車, 船舶 등 輸送機械와 金屬製品, 시멘트 등 重工業製品輸出이 比較的 호조를 보인 반면 纖維製品 등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19.3% 신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工產品이 87.2%로 계고되었고 그중 重化學製品은 33.3%로서 지난해보다 1.9% 포인트가 늘어난 반면 輕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은 53.9%로 줄어들었다.

한편 輸入은 原油, 原木 등 工業用原料 및 燃料와 機械類 등의 輸入增加로 대체로 76年中의

<表-5>

地域別 品目別 輸出動向

(單位：百萬弗)

		7 5		7 6		7 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地 域 別	아 시 아	2,053	40.4	3,169	41.1	4,251	42.3	34.1
	(日 本)	1,293	25.4	1,802	23.4	2,148	21.4	19.2
	(中 東)	251	4.9	576	7.5	1,041	10.4	80.6
	유 럽	937	18.4	1,353	17.5	1,760	17.5	30.1
	北 美	1,763	34.7	2,848	36.9	3,535	35.2	24.1
	(美 國)	1,536	30.2	2,493	32.3	3,119	31.0	25.1
	南 美	19	0.4	20	0.3	60	0.6	194.6
	아 프 리 카	201	3.9	208	2.7	291	2.9	39.9
	대 양 주	109	2.1	117	1.5	151	1.5	29.3
合 計	5,081	100.0	7,715	100.0	10,047	100.0	30.2	
品 目 別	農 産 品	351	6.9	345	4.5	472	4.7	36.5
	水 産 品	373	7.3	339	4.4	722	7.2	113.0
	鑛 産 品	67	1.3	78	1.0	95	0.9	22.1
	工 産 品	4,290	84.4	6,953	90.1	8,759	87.2	26.0
	(重化學製品)	1,373	27.0	2,419	31.4	3,349	33.3	38.4
	(輕工業製品)	2,917	57.4	4,535	58.8	5,410	53.9	19.3

增加勢가 지속되어 前年보다 23.2% 増加한 105 億弗을 시현하였다(<表-5> 參照). 이에 따라 77 年中貿易收支는 5億弗의 赤字를 나타냄으로써 76 年の 6 億弗赤字보다 1億弗 개선되어 經常收支黑字基調反轉에 크게 기여한셈이다.

한편 貿易外收支는 海外建設用役受入의 급증으로 76년까지의 赤字基調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黑字基調로 바뀜으로써 經常收支黑字의 주인이 되었다.

즉 貿易外收支는 76年の 72百萬弗赤字에서 中東地域을 중심으로 한 海外建設用役受入의 급증(12億弗)으로 320百萬弗의 黑字를 시현하였다.

다. 經濟成長

전술한 바와같은 貿易, 貿易外收支面에서 國際收支가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經濟成長은 內需의 약세에 따른 製造業成長의 鈍化, 遠洋漁業 및 麥類凶作에 따른 農林漁業의 부진 등으

로 76年の 15.5%(不變)의 高成長에 비하면 10.3%(不變)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같은 經濟成長의 主要特徵을 部門別로 살펴보면 우선 生産面에서 建設業, 電力, 運輸業 등 社會間接資本이 前年보다 22.8% 증가함으로써 年中成長에 크게 기여한 反面 鑛工業需部門은 前年比 11.2% 증가에 그쳤으며 기타 싸어비스 部門 또한 8.5% 증가에 머물렀다. 需要面에서는 投資需要는 民間 및 政府建設을 중심으로 前年에 비하여 23.4%의 큰 증가를 보인 反面 消費需要는 6.6%의 증가에 그쳐 약세를 보였다. 財貨用役 등의 輸出需要는 前年對比 28.5%의 增加勢를 시현. 꾸준한 伸장세를 보인 셈이다.

年中 總投資率은 26.2%로써 76年の 25%보다 높아졌으며 投資財源의 調達面에서는 國民貯蓄率이 前年の 22.3%에서 24.8%로 높아진 반면 海外貯蓄率은 2.6%에서 0.6%로 낮아져 投資財源의 자립도는 향상되었다.

國際收支 推移

<表-6>

(單位：百萬弗)

	76	77 (暫定)	增減額
I. 經常收支	△ 314	32	346
貿易收支	△ 590	△ 518	72
輸出	7,815	10,007	2,192
輸入	8,405	10,525	2,120
貿易外收支	△ 72	320	392
受入	1,643	3,055	1,412
支給	1,715	2,735	1,020
移轉去來(純)	349	230	△ 119
II. 長期資本(純) (借款 및 投資)	1,371 (1,639)	1,388 (1,900)	17 261
III. 基礎收支(I + II)	1,057	1,420	363
IV. 短期資本(純)	357	59	△ 298
V. 綜合收支(純外貨資 産의 增加 (III + IV))	1,173	1,309	136
VI. 金融計定(純)	337	55	△ 282
VII. 外換保有額增加	1,419	1,361	—
VIII. 外換保有額	2,961	4,322	1,361

經濟成長 推移

<表-7>

(單位：%)

			1975	1976	1977
成長率(不變)	G		8.3	15.5	10.3
	N		7.1	8.9	3.1
	P		12.9	25.4	11.2
	農林漁業 鑛工業 (製造業) SOS 및 其他「서 어비스」		12.9	26.1	11.2
産業構造(經常)	農林漁業		25.4	24.8	23.7
	鑛工業		29.7	31.0	30.0
	SOS 및 其他「서 어비스」		44.9	44.2	46.3
	(S O S)		11.6	11.6	13.1
總投資外 財源(經常)	總投資率		27.3	25.0	26.2
	國民貯蓄率		18.0	22.3	24.8
	民間		12.7	15.6	17.7
	政府		5.3	6.7	7.1
	海外貯蓄率		11.3	2.6	0.6
統計上不一致		△ 2.0	0.1	0.8	

國民財蓄率을 주체별로 보면 民間貯蓄率이 消費要의 둔화로 前年の 15.6%에서 17.7%로 높아졌으며 政府貯蓄率도 各稅收增大와 政府消費支出

産業生産推移

<表-8>

(前年(期)比 增減率：%)

	75	76	77	77 1/4	2/4	3/4	4/4
産業生産	19.0	33.2	14.1	0.7	5.2	7.4	2.4
(製造業)	19.4	35.6	14.1	0.3	5.1	7.4	3.0
(鑛業)	12.1	2.0	11.5	1.7	5.0	5.3	0.4
(電氣業)	17.8	16.5	15.0	5.2	5.5	2.8	△ 0.5

의 신장세 둔화로 前年の 6.7%에서 7.1%로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1인당 GNP는 76年の 700弗에서 864弗로 164弗이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實物經濟動向을 産業生産指數側面에서 살펴보면 우선 年中 産業總生産은 1/4分期 및 4/4分期中の 新장세 둔화를 반영하여 前年比 14.1%의 증가에 그침으로써 지난 73年以來의 伸張勢(73~76年中 前年比 各各 19.0~33.4% 增加)가 年중 둔화되는 傾向을 보였다.

이에따라 製造業生産動向은 시멘트 등 一部非金屬鑛物製品部門의 新장세가 前年보다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前年水準을 하회하여 전체적으로 76年對比 14%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年중 鑛業生産은 非金屬部門의 급신장(23.3%)으로 전년비 11.5%가 증가하며 부진상을 벗어나고 있다.

라. 通貨金融

77년중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通貨金融動向으로서 과다한 通貨增發과 이에따른 過剩流動性이 問題이었다.

당초 77年 財政安定計劃에 의한 通貨供給目標은 76年比 25%인 3,860億원이었으며 그후 다시 28%로 수정된 바 있었으나 年말현재 通貨供給總額은 무려 40.7%에 달하는 6,286億원이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通貨量이 급증한 것은 政府部門에서의 通貨還收에도 불구하고 國內信用 특히 國際收支改善에 따른 海外純資産(Net Foreign Asset) 증가에서 비롯된 流動性撒超가 크게 확대된데 기인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輸出 및 海外建設用役의 지속적 호조를 반영한 海外部門의 通貨供給은 年중 6,561億원으로 通貨總供給量의 104%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政策當局은 하반기부터 海外部門의 通貨量

	資 産			負 債			
	76年中 實 績	77年中		76年中 實 績	77年中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國 內 信 用	8,162 (20.7)	9,281 (19.5)	10,935 (23.0)	通 貨	3,623 (30.7)	4,323 (28.0)	6,286 (40.7)
政 府	△443	△1,000	△1,047	準 通 貨	6,532	7,800	9,938
政 府 代 行	—	1,000	1,000	(貯蓄性預金)	(6,305)	(7,600)	(9,275)
民 間	8,605 (24.4)	9,281 (21.2)	10,982 (25.1)	總 通 貨	10,155 (32.6)	12,123 (29.3)	16,224 (39.3)
海 外 部 門	5,124	4,842	6,561				
(NFA:百萬弗)	[1,185]	[1,000]	[1,305]				
其 他	△3,131	△2,000	△1,272				

註: 1) 增加額 基準임.

2) () 內는 前年比 增加率(%)임.

增加율의 轉換政策 즉 外資導入의 選別的 統制, 輸入擔保金率引下 및 輸入制限緩和 등 KFX 資金에 의한 輸入規模擴大, D/A, Usance 등 短期貿易信用導入禁止, 輸出先受金, Bank Loan 등 外貨借入抑制 등 다각적인 海外部門 通貨供給抑制政策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같이 國內信用中 海外部門供給量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民間部門에 대한 공급여력이 제약되어 輸出과 비교적 관련이 약한 內需企業 그중에서도 특히 資本市場이나 直接金融調達能力이 취약한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이 屢박하였다는 問題點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海外部門 또는 國內部門中 어느 쪽을 통하였던지간에 년중 40%를 상회하는 막대한 量의 通貨가 공급되었음에도 市中에서 資金不足 현상이 노정되었다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金融市場의 資金循環體系에 구조적인 결함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物 價

77年中 全國都賣物價는 附加價值稅實施와 더불어 既存價格體系의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前年同期比 10.1%가 상승하였다. 類別로 보면 食料品이 공급감소와 체제개편에 따른 가격 체계개편에 편승하여 21.1%나 상승한 반면 食料品이외품목은 5.4% 상승으로 안정세를 나타내

었다.

用途別로는 消費財가 食料品 가격등기로 15.8% 상승하였고 資本財는 8.0%, 原資材價格은 4.7% 상승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全國消費者物價는 전년말비 11.0% 상승하였는데 都賣物價와 마찬가지로 食料品 상승이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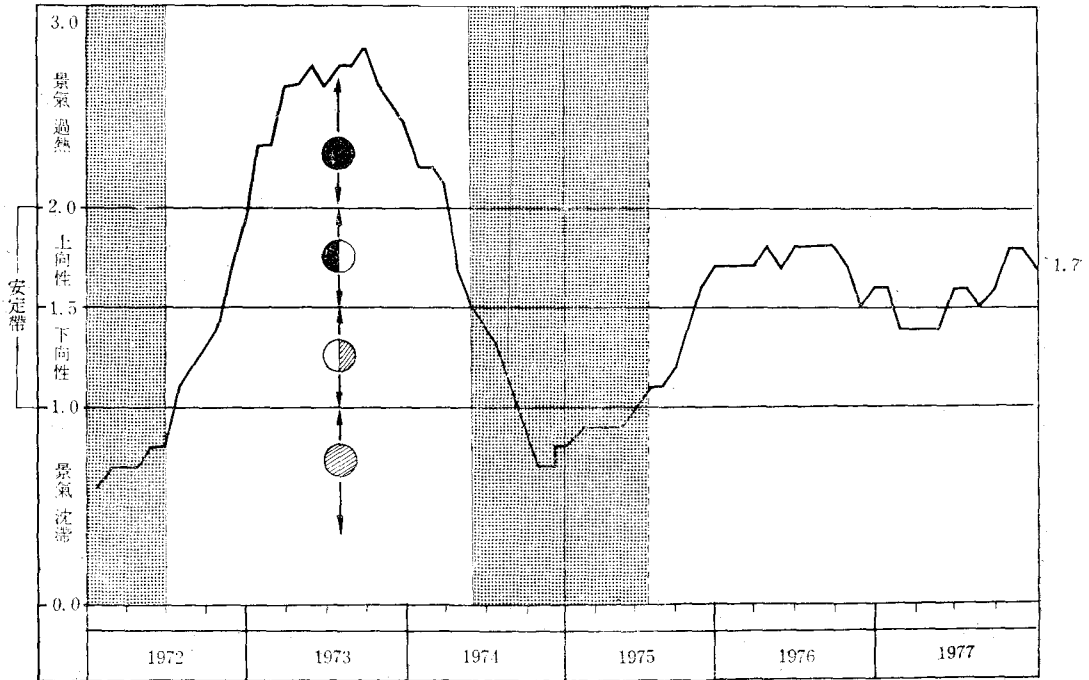
그러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輸出入物價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輸出物價는 전년말비 5.5% 상승하였고 輸入物價는 전년말 수준과 같았다.

物價上昇推移

<表-10>

(單位: %)

	75	76	77
都 賣 物 價	19.6	9.4	10.1
(年 平 均)	(26.6)	(12.1)	(9.0)
食 料 品	25.5	14.2	21.1
食料品以外	16.5	7.4	5.4
(農水産品)	28.0	19.2	29.0
消費者 物價	26.4	9.6	11.0
(年 平 均)	(25.3)	(15.3)	(10.1)
食 料 品	31.6	11.9	12.3
食料品以外	21.3	7.6	9.8
輸出入 物價			
輸 出	7.0	9.8	5.5
輸 入	△5.4	6.3	—



〈그림-1〉 景氣豫告指標(WI)推移

바. 景 氣

지금까지 살펴본 1977年中 經濟動向의 주요 특징은 高成長率의 지속, 國際收支의 호전이라는 밝은 측면과 通貨供給量의急增, 物價不安이라는 어두운 면이 병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經濟動向을 반영, 綜合景氣指標인 WI(Warning Indicator)는 1975年 이래 계속 上向性安定帶에 머물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III. 1978年 經濟展望

1. 國際經濟展望

가. 經濟成長

1978年中 主要各國의 經濟成長은 1977年과 같은 弱勢基調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國別로는 다소 양상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日本, 西獨 등은 1977年과 비슷한 成長을 유지할 것이며 캐나다 및 西歐諸國은 低率成長이기는 하나 1977年水準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世界經濟의 回復을 주도하였던 美國은 成長速度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OECD 全體의 1978年중 成長率은 약 4% 水準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77年의 成長率(推定值)과 비슷한 수준이다(〈表-1〉 參照).

需要側面에서 國別景氣要因을 부여하면, 美國은 租稅削減 등 景氣浮揚策 實施展望에도 불구하고 緊縮政策의 강화로 長期設備投資 및 住宅投資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여 總需要가 약세로 반전된 전망이다. 캐나다는 稼動率의 低水準 등 다소 제약요인이 있기는 하나 인플레이션化 등의 요인에 따라 設備投資 및 住宅投資가 호조를 보일 것이며 특히 개스파이프인의 建設 등 에너지 關聯產業은 큰 활기를 보여 成長率 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弱勢 通貨國中

그간 國際收支의 惡化 및 인플레이의 加速으로 제로 成長에 가까운 부진을 보였던 英國은 北海油田의 개발에 따른 國際收支의 好轉과 인플레이 鈍化를 배경으로 景氣擴大策을 실시함으로써 投資 및 消費需要가 증대되어 成長勢가 提高될 展望이나 기타 유럽 諸國은 인플레이 潛在要因의 상존 및 國際收支 改善基調의 위약으로 여전히 2~3%의 低成長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通貨價値의 급등에 따른 디플레이 效果와 景氣擴大策의 미흡으로 日本과 西獨은 成長勢에 다소 蹉跌을 보일 것이나 公共支出增大에 따라 대체로 1977년과 비슷한 수준의 成長을 記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物 價

한편 1978년중 OECD 諸國의 인플레이率は 1977년보다 더욱 둔화되어 年間 7.5%로 낮아질 展望인데 이는 成長勢減速으로 投資 및 消費需要가 약세를 보이는 한편 1次產品에 대한 需要도 약세를 지속할 것이며 12月 20日頃에 개최될 OPEC 閣僚會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主要產油國이 油價의 동결을 희망하고 있어 原油價格은 小幅引上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表-2> 參照).

國別로는 美國이 一部供給不足 食料品 價格上昇 및 에너지 節約政策에 따른 石油製品價格의 상승으로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를 보일 전망이고 西獨 또한 附加價値稅率의 인상으로 197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 반해 日本은 엔貨 강세가 1978年 上半期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가 크게 둔화될 것이며 英國, 이탈리아, 프랑스 등 弱勢通貨國에서도 國際收支의 改善, 所得政策의 效果發生 및 隘路部門(原資材不足)의 해소로 현저한 인플레이 鈍化가 예상되며, 특히 英國은 公共料金小幅引上 및 輸入物價 上昇勢鈍化를 주인으로 1977년의 절반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다. 雇 傭

主要先進國經濟가 1978年中에도 成長減速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勞動需要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해 勞動供給은 더욱 증대될 것

으로 보여 雇傭改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國別로는 美國의 失業率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日本과 西獨은 1977년과 같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프랑스, 英國, 이태리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OECD 諸國全體로는 예년과 같은 5%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雇傭事情의 惡化持續은 自國失業防止를 위한 保護貿易主義強化 등 世界經濟의 發展制約要因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國家에 따라서는 早期 隱退制의 摸索 및 lay-off의 증대 등으로 또 다른 社會問題에 까지 비화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表-3> 參照).

라. 貿易 및 國際收支

1978년중 世界貿易規模는 1977년에 비해 다소 호조를 보인 6%정도의 伸張勢가 예상된다. 國別로는 美國의 輸入이 石油備蓄計劃으로 1977년과 1978年 兩년에 걸쳐 큰 증가를 보일 것이며 強勢通貨國인 西獨 및 日本의 輸入도 通貨價値의 급상승을 배경으로 78년중,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經常收支 黑字減縮을 위해 緊急輸入對策을 계획하고 있는 日本은 農產物과 原資材部門輸入에서 큰 增加를 보일 것이다.

또한 1978년중 設備投資가 다소 活氣를 보일 캐나다도 현저한 輸入伸張이 예상된다.

한편 OPEC 諸國의 輸入은 계속적인 經濟開發計劃의 추진으로 여전히 높은 伸張勢를 유지할 것이나 非產油開途國의 輸入은 1次產品 價格의 상승세둔화에 따른 輸出收入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7%, 1978년에 8%의 신장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1978년에는 그룹別 經常收支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OECD 諸國內에서는 프랑스가 黑字로 반전되고 英國은 石油收入의 증대로 또한 이태리는 觀光收支增大과 輸出伸張으로 黑字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ECD 諸國 전체로서 대폭적인 收支改善이 이루어져 經常收支 赤字幅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OPEC 諸國은 石油收入 감소와 輸入增加로 黑字幅이 축소될 것인데 반해 非產油開途國

<表-11>

地域別 經常收支 展望

(단위 : 億新 SDR)

	1976	1977	1978
<OECD全體>	-220	-230	-60
美 國	-11.5	-134	-139
日 本	32	98	144 ²⁾
西 獨	27.3	22	-1
英 國	-21.4	8	33
프 랑 스	-52.2	-12	42
이 탈 리 아	-24.4	21	71
캐 나 다	-36.7	-44	-42
<產 油 國>	410	390	300 ¹⁾
<非產油開途國>	-170	-150	-250

註 : 1) Morgan Guaranty Trust Co.는 235億 SDR(石油價格 5%上昇前題)로 展望

2) OECD 展望値는 85億新 SDR 임

資料 : NIESR(NIER 1977. 11月)

은 그 赤字幅이 1次產品價格의 약세지속과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強化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國內經濟展望

가. 1978年 經濟運用施策의 基本方向

올해는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第2次年度로서 政府의 經濟運用施策의 基本方向은 우선 지난해에 우리 經濟가 이룩한 自立成長의 바탕 위에 經濟의 安定基調定着과 高度成長의 지속을 통한 확대균형을 추구하려는 데에 두고 있다. 즉 지난해 초 대통령의 年頭記者會見이나 經濟部處長官 共同記者會見 및 各部處의 業務運營計劃을 中心으로 살펴본 今年度 經濟運用施策의 基本方向은

- ① 物價의 안정과 貯蓄의 증대
- ② 投資의 촉진과 產業合理化
- ③ 技術 및 人力開發
- ④ 中小企業의 지원
- ⑤ 貿易의 확대
- ⑥ 社會開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施策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今年度 經濟運用에 있어서 最優先的인 政策課題를 物價安定과 貯蓄증대에 두고 年中物價上昇率을 10%이내에서 안정시키는 한편 金融

貯蓄을 2兆6千億원 이상 증대시킬 計劃이다. 物價의 안정을 위해서는 物價定安의 기본을 物量供給의 확대에 두고 供給不足이 예상되는 品目에 대한 輸出入의 調節과 備蓄의 확대 需給點檢制의 실시 등으로 需給圓滑化를 기하는 한편 通貨面에서 海外部門의 通貨增發規模축소, 財政赤字의 최소화 등으로 通貨增加率을 年 30% 내외 (1977年 40.7%)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金利의 彈力的 調整으로 貯蓄誘因을 강화하고 證券市場과 第2金融圈을 계속 육성하여 國民貯蓄率을 지난해의 24.8%에서 26.4%로 제고시킬 計劃이다.

둘째, 民間投資의 촉진과 產業合理化를 위하여 今年中 外貨貸付 13億 달러를 포함한 1兆9千億원의 民間信用을 공급하는 한편 稅制 價格面의 投資誘因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產業合理化投資를 촉진하고 投資關聯法規를 整備補完하여 輸入開放 등 國際化에 대비한 產業能率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셋째, 先進技術의 과감한 도입을 위하여 技術導入을 단계적으로 自由化하고 導入許可節次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自體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해 5個 專門研究所의 新規建設, 技術用役會社의 育成, 民間企業의 研究開發活動支援 등을 적극 추진할 計劃이다. 人力開發에 있어서는 供給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經營系 및 技術系 人力의 供給을 대폭 늘리고 5個 工高 및 8個 專門學校를 신설하는 등 實業教育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당면한 技能人力不足現象을 해결하기 위하여 公共職業訓練과 社內職業訓練을 강화하여 9萬2千名의 技能工을 양성할 예정이다.

네째, 본격적인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관계정립을 위한 法令補強 資金支援 및 技術指導를 통한 經營·技術指導體系의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資金面에서 中小企業育成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50%가 증액된 總 2,250億원의 中小企業資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섯째, 對外去來面에서는 輸出擴大政策을 계속 추구하여 輸出目標 125億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輸入擴大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輸出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輸出金融體制를 지속하고 延拂輸出支援의 확대 輸出保險의

強化, 세일즈活動의 專門化 등으로 重化學工業 製品의 輸出增大을 도모하며 商品의 多樣化 및 高級化, 輸出市場의 多邊化, GATT의 多國間 貿易障壁 引下運動에의 참여 등으로 輕工業製品 輸出에 대한 先進國의 輸入規制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미 中東地域에 크게 진출하고 있는 海外用役事業을 더욱 촉진함과 동시에 中東 이외의 新規市場開拓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輸入에 있어서는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와 投資促進, 物價安定 등을 위하여 단계적인 輸入自由化를 지향하되 이를 위해서는 輸入自由化의 年次別 綜合計劃을 樹立·豫示하고 外貨貸付의 확대 등 輸入金融制度를 개선할 것이다.

여섯째, 經濟開發의 궁극적 목적인 國民福祉의 향상을 위하여 社會開發을 확충하도록 住宅供給을 대폭 확대하고 勤勞環境의 개선, 産業安定機能의 강화 등을 통하여 勤勞者의 權益을 신장하며 醫療保險擴大 등으로 社會保障의 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나. 經濟成長

政府는 올해의 經濟成長目標을 지난해와 비슷한 10~11%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上의 금년 成長率 9.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同計劃의 連動化方針에 따라 1977年 9월에 발표된 1977~1979年 經濟運用計劃上의 11.0% 성장과는 비슷한 수준으로서 올해의 世界景氣回復 전망이 다소 불안정 하지만 年中 世界經濟成長率 및 交易伸張率이 대체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이다.

産業別成長을 보면 먼저 農林漁業部門은 遠洋漁業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쌀 4,200萬石生産, 보리의 平年作 水準回復 등으로 7.0%의 성장이 計劃되고 있으며 非農林漁業部門에 있어서는 전년의 12.2%보다 약간 낮은 11.3%의 성장을 計劃하고 있다. 이중 鑛工業成長率은 海外需要伸張勢의 상대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內需部門의 投資振作으로 전년의 11.2%보다 높은 13.3%로 정책되어 있다. 한편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 部門은 輸出物量增加勢의 둔화 및 전년중 社會間接資本의 급성장에 대한 반작용

으로 전년의 13.0%를 하회하는 9.7%의 성장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같은 産業別成長에 따라 産業構造面에서는 農林漁業部門의 비중이 1977年の 23.7%에서 23.3%로 약간 낮아지고 鑛工業 比重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3%를 유지하는 반면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업비중이 46.3%에서 46.7%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의 人口는 37,019千名으로 예상되어 1人當 國民總生産은 1,000달러를 넘어선 1,060달러 수준에 달하게 되고 就業者數는 지난해보다 439千名이 늘어난 13,526千名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의 目標成長率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所要總投資規模는 전년에 비해 28.6% 증가한 5兆1,335億원으로서 이의 GNP에 대한 比率인 總投資率은 전년의 26.2%보다 다소 높은 27.0%로 計劃되어 있다. 이 投資財源의 조달을 위하여 금년중 國民貯蓄率은 전년의 24.8%에서 26.4%로 提高되나 海外貯蓄率은 전년과 같은

<表-12>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單位: %)

	成長率(不變)		産業構造(經常)	
	1977 ^{o)}	1978	1977 ^{o)}	1978
國民總生産	10.3	10.5	100.0	100.0
農林漁業	3.1	7.0	23.7	23.3
非農林漁業	12.2	11.3	76.3	76.7
鑛工業	11.2	13.3	30.3	30.0
(製造業)	11.2	13.5	28.8	28.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어비스]	13.0	9.7	46.3	46.7

<表-13> 投資財源調達(經常價格) (단위: 10억원)

	1977 ^{o)}		1978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總投資(10억원)	3,992.7	100.0	5,133.5	100.0
國民貯蓄(〃)	3,778.9	94.6	5,019.8	97.8
海外貯蓄(〃)	86.6	2.2	113.7	2.2
總投資率(%)	26.2		27.0	
國民貯蓄率(〃)	24.8		26.4	
海外貯蓄率(〃)	0.6		0.6	

0.6%에 머물러 投資財源의 자립도는 1977年の 94.6%에서 97.8%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 貿易 및 國際收支

금년중 國際收支政策上的 주요특징은 지속적인 輸出伸張과 輸入확대로 經常收支를 均衡水準에 유지하고 長短期資本導入을 축소하여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壓力을 완화하려는데 있다.

우선 년중 商品輸出目標은 125億달러(國際收支基準)로 책정하여 그 伸張率을 지난 해의 28.0%보다는 다소 낮게 잡고 있다. 產品別로는 工產品이 전년보다 26.9% 증가한 114億달러로서 總輸出中에서의 비중이 1977年の 87.2%에서 91.4%로 높아지고 農水産 등 其他製品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11億달러로 計劃되고 있다. 工產品中에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전년대비 30.2% 증가하여 工產品中에서의 비중이 41.2%로 더욱 높아지는 반면 輕工業製品은 그 비중이 58.8%로 낮아질 것이다.

한편 輸入은 物價의 안정과 투자축진을 도모하고자 전년보다 25.4% 증가한 132億달러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貿易收支赤字幅은 지난해의 518百萬달러에서 700百萬 달러로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海外建設用役 및 觀光輸入 등을 중심으로 貿易外收入의 黑字가 465百萬 달러로 확대됨으로써 年中 經常收支는 균형을 유지하거나 소폭의 적자에 그치게 될 것이다.

한편 資本去來에 있어서는 海外部門에서의 通貨增發壓力을 완화하기 위한 短期資本導入의 抑制方針에 따라 海外로부터의 借款 및 投資規模가 전년 1,900百萬 달러에서 1,700百萬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에 따라 經常收支와 長期資本收支를 합한 基礎收支의 黑字規模는 전년보다 작은 891百萬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短期資本의 導入이 억제됨에 따라 綜合收支黑字 역시 크게 줄어든 225百萬 달러로 計劃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년중 純外貨資産(NFA)의 증가는 전년의 13億 달러에서 5億달러 수준으로 축소되고 연말 外換保有額은 작년말보다 7億 달러 증가한 50億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表-14〉 國際收支 (단위: 백만달러)

	1977 ^o	1978
I. 財貨와 用役收支	△198	△235
1. 貿易收支	△518	△700
輸 出	10,007	12,500
輸 入	(+28.0%) 10,525	(+24.9%) 13,200
(增 減)	(+25.2%)	(+25.4%)
2. 貿易外收支	320	465
II. 移轉去來(純)	230	235
III. 經常收支	32	0
IV. 長期資本收支 (借款 및 投資)	1,388 (1,900)	891 (1,700)
V. 基礎收支	1,420	891
VI. 短期資本收支	59	△666
VII. 綜合收支	1,309	225
VIII. 外換保有高 (增 減)	4,322 1,361	5,010 688

한편 國際收支의 實行計劃인 外國換需給計劃의 主要內容을 개관하면

첫째, 經常外換收支의 黑字基調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外換保有額을 유지하며

둘째, 輸入의 점진적 자유화를 기하되 특히 施設材輸入에 대한 外貨貸出을 확대하여 企業의 設備投資 資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輸出競爭力強化를 도모하고

셋째, 企業의 對外經濟活動의 支援 및 그 環境改善을 위하여 外換管理의 수단적 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金融國際化의 심화에 주력하는 한편

네째, 外資金融을 國內金融으로 점점 전환함으로써 海外借入依存度を 줄이는 동시에 對外債務構造의 질적개선에 역점을 두며

다섯째, 保有外換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의 收益性和 流動性を 최대한 提高시키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다음 〈表-15〉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1978年度 外國換需給計劃의 주요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輸出의 지속적 신장을 뒷받침할 輸出産業의 設備擴充支援과 物價安定을 위한 수출확대를 감안, 貿易收支黑字는 지난해보다 대폭 縮小 計上한 반면

둘째, 貿易外收支에 있어서는 1976年 이래의 貿易外受入의 급격한 증가세가 올해에도 계속될

〈表-15〉 1978年度 外國換需給計劃(總括表)
(單位:百萬달리)

	1977 ^{*)}	1978	增 減	
			增減額	增減率 (%)
1. 經常收支	2,073	1,672	-401	—
貿易收支	1,309	730	-579	—
輸出	10,118	12,300	2,182	21.6
輸入	8,810	11,570	2,760	31.3
貿易外收支	765	942	177	—
受 入	3,092	4,323	1,231	39.8
支 給	2,327	3,381	1,054	45.3
2. 資本去來(純)	-387	-984	-597	—
3. 誤差 및 漏落	-325	—	—	—
4. 外換保有額	4,322	5,010	688	—

것으로 전망하여 同 收支黑字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계, 資本去來에 있어서는 外換保有額의 급증에 따른 海外部門通貨增發을 완화하고 對外借入의 적정화와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중에는 外資金融의 國內金融轉換 및 資本導入의 選別強化로 資本收支를 종래의 受取超樣에서 支給超로 전환토록 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國際收支와 관련하여 끝으로 금년중 貿易活動의 基本指針이라 할 수 있는 輸出入 期別 公告의 主要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금년 上半期 輸出入期別公告의 주요특징은 작년 11月 18日에 있었던 輸入自由化暫定措置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貿易政策의 基本방향을 開放體制로 전환시키려는 데 있다.

즉 輸出部門에 있어서는 현행 禁止品目 및 制限品目 중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品目에 대하여는 자유화하였으며 다만 덤핑 등의 사유로 輸出秩序의 유지가 필요한 品目에 한하여 輸出制限措置를 취한 외에는 신규제한은 원칙적으로 억제하였다.

자유화의 內容을 品目別로 보면 펄프紙의 屑과 古 등 BTN 4單位基準 2個品目を 輸出禁止品目에서 自動承認品目으로 변경하였고 制限承認品目中 屑고무 및 古 타이어, 木工品(棟間), 人造 꽃, 電氣式信號機(Detector 등), 樂器部品, 卓球 공, 단추 등 7個品目を 自動承認品目으로 변경하였다.

같은 自動承認品目中에서 4個品目を 制限承認品目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毛皮中 犬毛皮는 輸出禁止, 鐵鋼의 板과 와이어 로푸는 鐵鋼協會推薦品目으로 하며 카니발用 假髮은 毛髮製品輸出組合의 推薦品目으로 변경하여 生産者 保護와 輸出秩序의 유지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BTN 4單位 1,097個品目基準으로 볼 때 輸出禁止品目은 11個에서 9個로 2個品目이 줄었으며 輸出制限承認品目은 240個에서 237個로 3個品目이 줄어든 反面, 輸出自動承認品目은 846個에서 851個로 5個品目이 증가되었다.

이밖에도 輸出制限承認品目中 炭化水素 등 8個品目に 대하여 제한을 일부 해제하였다.

輸入部門에서는 輸入禁止品目 및 輸入制限承認品目の 축소와 輸入自動承認品目の 대폭적인 확대, 輸入制限承認品目中 制限內容의 일부 완화, 品目別 네거티브제의 擴大實施, 實需要者 輸入許容의 완화를 통하여 대폭적인 輸入自由화를 단행하였다.

이번 期別公告上 輸入自由화된 品目은 총 126개(SITC SUB-ITEM 基準)로 지난 11月 18日의 輸入自由化暫定措置分 60個를 합하면 총 186개가 된다.

지난 11月 18日 商工部는 外換收支의 호전에 따른 通貨增發抑制, 國內物價의 안정, 物資需給의 원활화와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하여 현행 輸出入期別公告上 輸入禁止 또는 制限品目이라도 輸入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例外措置事項을 發動하여 輸入禁止 또는 制限品目中 계속적으로 輸入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온 品目, 상당한 輸出實績이 있는 品目, 基本關稅率이 40% 이상인 品目과 이밖에 國內需給圓滑과 物價安定을 위해 필요한 品目중에서 선정한 생고무, DMT, 古鐵 등 原資材와 울셀印刷機, 會計機, 車輛部品 등 機械類와 部分品 60개品目(SITC SUB-ITEM 基準)에 대하여 輸入을 자유화하였는데 이들 品目들은 이번 期別公告에서도 그대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期別公告에서 자유화조치된 126개品目(SITC SUB-ITEM 基準)을 用途別로 구분하여 보면 ①엔진部分品, 製紙機械類, 特殊木工機械, 아스팔트 휘니셔 등 機械類 및 同部分部이

52개 품목 ②赤色酸化鐵, 알곤, 染料一部, 염소산 카리움 등 原資材 및 副資材 59개 품목 ③아크릴 F系, 바라이다紙 등 纖維 및 化學製品中 消費資材가 15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BTN 4單位 1,097개 품목기준으로 볼 때 輸入禁止品目은 52개에서 50개로 2개 품목이 줄었으며 輸入制限承認品目은 484개에서 456개로 28개 품목이 줄어든 반면 輸入自動承認品目은 561개 품목에서 591개로 30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종래 實需要者에게만 輸入許容 되도록 제한해 왔던 機械類를 중심으로 한 40개 품목에 대하여 일반 貿易業登錄業者도 輸入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輸入自由化의 제도적인 개선을 기하였으며 지금까지 一部品目에 한하여 실시해 오던 品目別 네거티브제를 21개 機械類品目에 확대 실시키로 함으로써 제한구분을 揭記하지 않은 其他品目은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표기하여 輸入自由化의 확대를 위한 체제상의 개선을 기하였다.

이와함께 機械類의 輸入推薦業務를 機械工業振興會에서 精密機器 센타와 造船工業協會로, 계면 活性劑는 石油化學工業協會에서 계면 活性劑工業協同組合으로 移管하는 등 推薦機關을 합리적으로 調整하였고 鹽, 苛性소다, 염소산 카리움 등을 商工部別途公告品目에서 당해 組合推薦品目으로 변경하여 별도공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輸入이 금지되어 왔던 이들 品目들에 대하여 選別的으로 輸入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期別公告上的 輸入自由化措置는 종래의 일방적인 輸入規制와 輸出振興一邊倒의 貿易政策에서 開放體制에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이는 輸出規模의 확대 國際收支의 黑字轉換, 그리고 對外準備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通貨增發壓力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라. 財 政

올해의 總財政規模는 전년보다 23.4%가 늘어난 4兆7,998億원(對經常 GNP 比重 25.2%)으로 計劃되고 있는데 그중 一般會計規模는 3兆5,170億원(前年最終豫算對比+22.5%)에 이르러 一般

〈表-16〉 主要財政指標 (단위 : 10억원)

	1977(總終豫算)	1978(豫算)
總 財 政 規 模	3,888.9	4,799.8
一 般 會 計	2,870.0	3,517.0
特 別 會 計	1,081.9	1,282.8
總 財 政 負 擔 率 (%)	25.5	25.2
一 般 會 計 (%)	18.8	18.5
特 別 會 計 (%)	6.7	6.8

財政負擔率이 전년의 18.8%에서 18.5%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歲入面에서는 新稅制下에서의 低所得層 및 中產層租稅負擔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所得增大에 따른 稅收의 自然增加와 關稅, 專賣益金, 防衛稅增加 등으로 總租稅收入이 전년보다 28.9% 증가한 3兆3,114億원(比前年+28.5%)에 이름으로써 租稅負擔率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17.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歲出面에서는 一般行政費가 公務員俸給引上 등으로 3,670億원(同+28.2%)으로 늘어나고 國防費가 1兆2,512億(同+27.2%), 教育, 保健, 住宅 등 社會開發費가 7,864億원(同+25.8%)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經濟開發費는 7,101億원으로 9.4% 증가에 그칠 展望이다.

마. 通貨金融

년중 通貨供給計劃을 보면 지난 해에는 海外部門을 통한 流動性膨脹을 주인으로 通貨가 40.7%(6,286億원)나 증가하였으나 금년중에는 輸入의 단계적 開放과 長短期 海外金融의 國內金融으로의 轉換 등을 통하여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을 대폭 줄임으로써 년중 通貨增加率을 30% 내외로 유지할 計劃이다.

그러나 國內信用 民間企業의 設備投資 및 생산촉진을 위한 外貨貸付의 확대, 輸出產業과 內需產業에 대한 균형있는 資金供給을 도모하기 위해 對民間信用供給을 확대함에 따라 지난 해의 23% 증가에서 34.2%로 확대될 展望이다.

즉 우리나라의 國際收支가 호전되기 시작한 1976年 이래 通貨供給의 主經路는 그 이전의 政府 또는 民間部門主導에서 海外部門主導로 그 공

<表-17>

78年 通貨計劃

(단위 : 억원)

	77末	78末	增 減	
			77年中	78年中
國內信用	58,441	78,440	10,935 (23.0)	19,999 (34.2)
政 府	1,545	1,615	△1,047	700
肥 料	2,100	2,400	1,000	300
民 間	54,796	73,795	10,982 (25.1)	18,999 (34.7)
海外部門	9,355	10,444	6,561	1,089
[NFA:百萬弗]			[1,305]	[225]
其 他	△10,248	△12,448	△1,272	△2,200
總 通 貨	57,548	76,436	16,224 (39.3)	18,888 (32.8)
通 貨	21,726	28,274	6,286 (40.7)	6,548 (30.0)
準 通 貨	35,822	48,162	9,938 (38.4)	12,340 (34.4)
貯蓄性預金	34,686	46,686	9,275 (36.5)	12,000 (34.6)

註 : () 入는 增加率(%)임

급패인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77年중에는 通貨總供給量中 海外部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4%로 年中 通貨供給량의 전망이 실질적으로 海外部門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금년 通貨計劃의 주요특징은 輸入의 단계적 自由化와 長短期海外金融을 國內金融으로 전환함으로써 海外部門의 通貨增加壓력을 완화하고 財政部門에서도 歲出節減 및 追更豫算編成의 慣行을 止양함으로써 財政의 건전한 운용을 기함은 물론, 財政證券 및 糧穀證券 발행규모의 확대함으로써 政府部門의 적자폭을 극소화하여 가능한 한 제한된 資金을 民間部門을 통하여 均衡있게 供給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國內與信이 규모면에서는 前年에 비해

<表-19>

民間與信供給屬望

(단위 : 억원)

	7 7	7 8
民 間 信 用	10,982 (25.1)	18,999 (34.7)
國際收支關聯與信	3,082	9,970
外 貨 貸 出	2,807	5,570
對 輸 銀 信 用	417	450
原 資 材 輸 入 金 融	—	2,000
先 受 金 代 替	—	800
輸 出 金 融	△142	1,150
其 他 民 間 信 用	7,900 (22.4)	9,029 (20.9)
金 融 資 金 外	527	2,329
金 融 資 金	7,373 (24.7)	6,700 (18.0)

크게 확대(과거 4年中 最高 水準)되었다 하더라도 海外金融의 國內轉換에 따른 國際收支關聯與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國內民間與信의 實質供給량을 그 여유가 충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內需企業의 資金事情은 77年 4/4分期以來의 梗塞現象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제한된 國內民間與信의 보다 效率的인 운용을 위해서는 中小企業資金, 住宅資金, 庶民金融 등 隘路部門支援을 위한 政策資金中心의 選別的 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一般貸出 등 其他 內需産業에 대한 支援規模는 相對的으로 縮小될 것으로 豫想된다.

한편 올해의 金融貯蓄動員目標은 1977年보다 39.0%(殘額基準) 증가한 5兆6,000億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 貯蓄性預金은 金利의 彈力的 調整 등 貯蓄 誘因의 강화를 통하여 전년보다 34.6% 늘어난 1兆2,000億원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保險, 信託 등 非銀行貯蓄도 전년

<表-18>

部 門 別 通 貨 供 給 推 移

(단위 : 억원 %)

	7 4		7 5		7 6		7 7		74~77合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 · 成 比
政 府 部 門	804	37.3	2,925	123.9	△443	△12.2	△47	△0.1	3,239	22.5
民 間 部 門	6,809	316.1	775	32.8	364	10.0	1,194	19.0	9,142	63.4
海 外 部 門	△4,792	△222.5	△534	△22.6	5,124	141.4	6,561	104.4	6,359	44.1
其 他 部 門	△667	△31.0	△806	△34.2	△1,422	△39.2	△1,422	△22.6	△4,317	△29.9
計	2,154	100.0	2,360	100.0	3,623	100.0	6,286	100.0	14,423	100.0
(增 加 率)	(29.5)		(25.0)		(30.7)		(40.7)		(31.5) ¹⁾	

註 : 1) 年平均增加率

<表-20>

金融貯蓄動員(純増)

(단위: 억원)

	1977P)	1978
貯蓄性預金	9,273	12,000
非銀行貯蓄	7,243	8,600
國·公·金融債	1,287	900
株式·社債	3,625	5,000
調整	345	500
純計	21,083	26,000
年末殘額對比增加率(%)	46.3	39.0

비해 41.2% 증가한 8,600億원을 늘리고 株式社債市場을 통한 資金動員規模도 지난 해의 3,625億원에서 5,000億원으로 확대할 計劃이다.

그러나 최근 通貨供給量 급증에 따른 超過流動性的 존재, 附加價値稅 실시이래의 物價再編成過程의 진행, 不動産 및 證券市場의 過熱機微 등 物價不安要因의 작용으로 總通貨中 貯蓄性預金還

流率 등 貯蓄增加勢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金融貯蓄動員이 計劃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貯蓄誘因을 제고시킬 수 있는 諸般措置 즉 物價의 安定, 實質金利를 보장해줄 수 있는 金利誘因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金利調整問題는 최근 그 타당성 與否, 時期, 引上幅 등에 대한 政府, 金融, 學界 등 關聯專門家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는바 問題의 본질은 長期的 政策方向으로서의 金利의 國際水準接近必要性和 短期的 對內均衡을 위한 物價對策으로서의 實質金利保障을 통한 金利의 資金需給媒介機能回復이라는 二律背反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政策選好問題인 것으로 생각된다.

銀行貯蓄增加推移 (單位: 億원)

	75年	76年	77年	78年
貯蓄性預金	4,601	6,305	9,275	12,000
(增加率: %)	(31.7)	(33.0)	(36.5)	(34.6)
總通貨中貯蓄性預金還流率(%)	67.5	62.1	57.2	63.5

<表-21>

設備投資實額調查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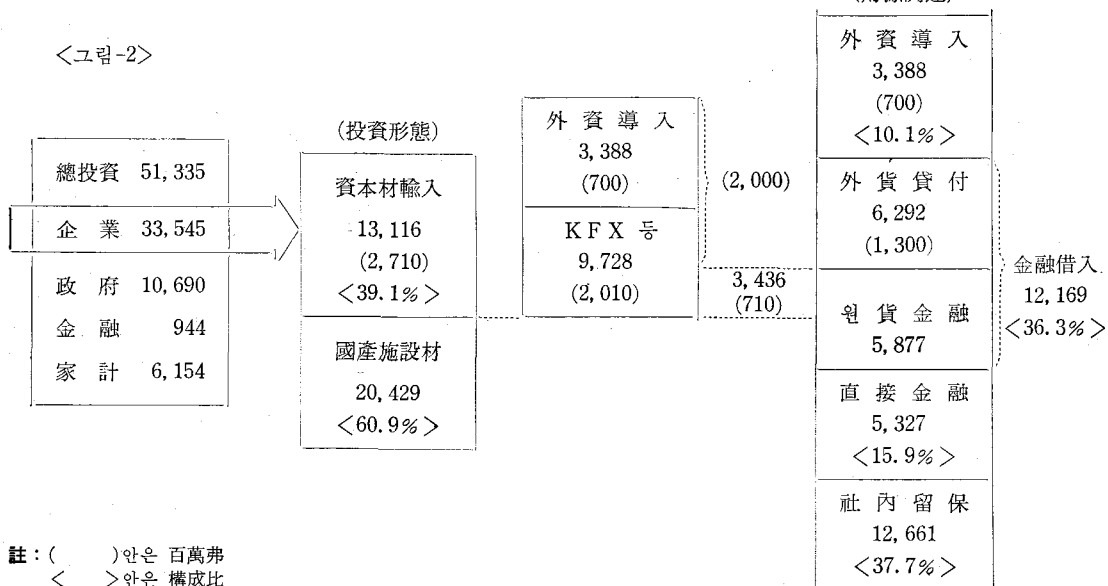
	76年	77年			78年		
		上半期	下半期	年中	上半期	下半期	年中
增加率	23.0	9.9	44.9	27.8	114.0	28.2	64.4

1978年中 民間企業設備投資財源

(단위: 억원)

(財源調達)

<그림-2>



註: ()안은 百萬弗
< >안은 構成比

通貨金融動向과 관련하여 78年中 企業의 設備投資計劃과 財源調達側面을 살펴보면 우선 實額調査에 의한 年中 設備投資增加率は 64.4%로서 전년 27.8%를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특히 78年 上半期中에는 前年同期에 비하여 114%의 急増推移를 보이고 있어 企業의 旺盛한 設備投資 마인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같은 設備投資를 위해서는 대체로 3兆3,000 億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財源調達方法은 海外로부터의 資本財輸入(39.1%)과 國產施設材의 國內購入(60.9%)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輸入의 경우는 外資導入 및 外貨貸付方式으로 國內購買는 金融機關으로 부터의 借入外에 最近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社債發行, 有價增資 등 直接金融 및 社內留保 등 自己資金에 의한 財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바. 物 價

앞에서 대체로 언급한 바 있지만 78年 經濟動向中 政策의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物價上昇抑制를 통한 經濟의 安定基調의 확보이다.

즉 1973年 國際資源波動的 충격으로 야기된 3年間의 高인플레이션을 거쳐 金融面에서 總需要管理政策의 견지와 海外原資材價格의 安定勢持續 및 政策當局의 강력한 物價安定對策 등에 힘입어 76년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견지해 온 物價趨勢가 77年中 附加價值稅制實施에 따른 物價體系의 전반적 조정과정에서 야기된 인플레이션리에 쯤배, 海外部門을 중심으로 한 過剩流動性供給에 따른 通貨인플레이의 time lag을 거친 顯在化可能性, 최근의 公共料金引上 등 抑壓型인플레이部門의 動搖, 過熱投資 및 所得水準向上에 따른 일부 隘路部門의 demand-pull 현상, 公金利가 實質金利水準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預金吸收機能의 약화 등 잠재적 物價上昇壓力이 도사리고 있어 經濟안정기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年초 都賣 및 消費者物價가 전년 수준을 상회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금년 物價抑制目標 10%가 사실상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리의 만연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더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73~75년 3개년의 높은 物價上昇率이 주로 海外인플레이의 國內流入에 의한 cost-push 요인에 주도되었다는 점과 76~77년중 物價上昇壓力이 주로 農水產品의 가격등귀에서 결과되었음을 감안하면(<表-10>參照) 최근 國際原資材價格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秋穀大豊으로 인한 食糧自給體制下에서 農水產物의 價格上昇壓力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VAT制實施에 따른 물가조정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때 금후의 물가동향은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밝은 면이 많아 적절한 總需要管理 및 對內均衡維持爲主의 成長政策에 초점을 맞출 경우 크게 悲觀的이라고 단은 볼수 없겠다.

IV. 맺 음 말

77年은 우리경제의 自立成長基盤을 다지는 第4次經濟開發5年計劃이 착수된 가운데 海外經濟의 혼미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그런대로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어느 정도 유지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즉 美國을 비롯한 主要先進國經濟가 76年 下半年以來의 低速成長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 國際收支의 불균형, 失業 등 현안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었으며 國際間的 貿易紛爭은 더욱 심해져 世界交易의 伸張率도 뚜렷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경제는 10.3%의 高成長, 100 億弗 輸出目標達成, 經常收支의 均衡, 主穀의 完全自立實現 등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 側面과 함께 우리경제에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증대한 당면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첫째는 內外로부터 가중되는 인플레이壓力下에서 어떻게 安定基調를 回復, 토착화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즉 77년에는 通貨信用의 急増과 附加價值稅制의 導入에 따른 流通構造의 部分的 마찰에도 불구하고 海外原資材價格의 안정적 추이와 강력한 安定化施策에 힘입어 當初目標를 그리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物價를 억제할 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전년으로부터 이월된 公共料金 및 主要物資價格의 引上壓力과 通貨面에서의 超過需要壓力이

도사리가 있을뿐 아니라 國際外換市場의 불안에 따른 輸入物價의 上昇도 우려되고 있다. 物價安定이 輸出産業의 對外競爭力을 維持強化함에 있어서나 國內貯蓄의 提高와 動員에 있어서나 나아가 經濟全體의 持續的 成長에 있어 불가결한 요인이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安定基調의 回復維持야말로 우리경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課題라 하겠는 바 이를 위한 政策的 노력을 倍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國際收支의 均衡基調를 정착화시키는 일이다.

급격한 與件變化가 없는 한 금년에도 對外去來는 대체로 均衡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昨今の 國內外經濟情勢로 보아 낙관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우리 商品에 대한 先進各國의 輸入規制가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海外市場에서는 後發開發途上國과의 競爭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對內的으로도 종래의 低賃金을 바탕으로 한 輸出産業의 價格競爭力이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지원정책도 차츰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輸出이 과거와 같이 높은 신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輸入은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自由化幅의 확대에 따라 그 增加勢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모처럼 이룩한 國際收支의 均衡基盤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工業構造의 고도화를 통한 輸出構造의 重化學製品主導型으로의 개편을 서두르는 한편 政策支援도 보다 장기적인 眼目에서 産業의 供給能力 培養과 産業技術 및 知識의 蓄積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 課題는 최근들어 더욱 촉진되고 있는

國民經濟의 國際化推移에 대처하여 우리경제의 調整能力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60年代初부터 輸出主導型의 外向的 成長政策을 추구해온 결과 商品輸出規模가 드디어 100億달러를 넘어서기에 이르렀고 對外去來의 內容도 나날이 복잡다양화되어가고 있으나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競爭領域은 더욱 國際化되고 世界經濟에의 의존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經濟施策의 基調를 産業의 自己適應力 및 體質強化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함으로써 市場經濟原理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經濟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고 個別經濟單位의 創意性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産業과 企業의 측면에서도 合理化運動의 推進·技術 및 知識水準의 제고를 통하여 對外競爭力을 강화하는데 倍前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昨今の 世界經濟의 동태가 앞으로는 不況과 인플레이의 混在속에서 高率의 失業과 過剩設備의 遊休狀態가 지속될 전망이 크고 이에따라 현재의 世界的 不況事態 탈피를 위한 美·日·西獨 등 主要先進國의 보다 적극적인 需要擴大策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타제국 특히 開途國은 그들의 經濟開發 또는 成長持續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국제경제의 추세하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世界經濟의 低速成長에 對備해서 對外均衡을 크게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對內均衡의 유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 이 과정에서 安定基調의 정착화를 위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할 縮小均衡問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政策課題라는 점이다.

